

빈고활동가대회 3부

모듬별 논의 내용을 간단히 적어주세요

MYUNGJIN MOON 20/12/26 03:52

모듬별 논의 내용을 옆에 적어주세요

1모듬 - 동물보험계(부깡, 유나, 헤일러, 미어캣)

동물보험계 - 기존의 계획

2020년 추진했으나 진행되지 못한 이유

1. 처음에 지출해야 하는 돈 자체가 큼(월 5-6만원 정도)
2. 동물은 보험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나가는 비용이 더욱 커서 사람들이 부담을 느껴 추진하기 어려웠음
- 2-1. 같은 이유로, 비용의 기준을 정하기 어려웠음
3. 최소한의 인원을 모으기 어려울 것이라 예상하였음 (약 2-30명 정도를 모으고자 하였음)

보안책

1. 지역 내 동물병원과의 연계 (빈고 회원, 살림 등에 협동조합 제안 등) - 아픈 이유를 명확히 찾기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면, 의사와의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
- 1-1. zoom 등을 통해 짧은 시간 동안 진료는 아니더라도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면 좋겠다.

필요성

1. 개인적으로 적금 형태로도 할 수 있지만, 병원을 찾아본다든가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위해서는 동물보험계가 있으면 좋겠다. 2021년에 이런 활동을 고민해보고 빈고 내외부에 알려보면 좋을 것 같다. (인원 모집상의 문제)
2. 건강 관련 정보(병원 등)를 공유할 곳이 절실하다.

제안

- 일단 빈고 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모임을 느슨하게 만들고,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슈를 공유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자. 병원 관련 정보를 공유하거나, 동물과 함께하는 생활을 나누는 등 (초점은 건강상태)
- 같이 사는 동물이나, 근처에 있는/자신이 돌보는 동물이어도 괜찮음. (커뮤니티 차원에서 만들고 -> 보험계로 진행)
- 건강계처럼 텔레그램방으로 시작하되, 너무 느슨해지지는 않게 분명히 방향성을 설정하고 시작하자. 방 내에서 한달에 한번 정도 줌 미팅을 갖거나 반려동물 소개의 자리를 가지는 등.
- 캣맘으로 활동하는 사람들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.(분쟁에 휘말리는 등의 문제 관련 정보 공유)

2모듬 - 활동가보험계+활동가퇴직연금+공동체보험계 (날맹, 우중산책, 설해, 지음, 반바지, 오재환)

보험의 종류

건강보험, 손해보험, 화재보험, ?

공릉은 그동안 퇴직금이 없이 선물을 해주거나 여행을 보내주거나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음.

보험+적금+이용

건강계의 사례에서 봤을 때, 보험+적금+이용을 결합하는 형태가 유용할 것으로 보여서 확대해보면 좋을 거 같아요.

건강계의 경우 비용이 너무 큰 경우, 저축을 병행했으면 좋겠다.

활동가의 위기

- o 가족문제?
- o 실업
- o 사고
- o 주거문제
- o 결혼
- o 출산
- o 사망
- o 벌금
- o 구속
- o 육아
- o 번아웃
- o 회복

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에 있는 활동가(소속이 있는)도 있지만, 아닌 활동가들에게는 빈고의 보험계가 확실히 도움이 될 수 있겠단 생각이 드네요 - MYUNGJIN MOON

공동체의 위기

- o 갈등
- o 해산
- o 파산

- 화재
- 벌금
- 구속
- 고장
-

운영상 고려할 것

- 동행 프로그램 확인
 - 매달 5000원
 - 최대 50?
 - 대상이 명확하지만 기존 아름다운재단과 유사
 - 빈고의 차별성?
 - ~~활동가
- 개인적인 벌금 등은 어떻게?
 - 장발장?
 -
- 저축성보험?
 - 출자로 분리
- 미디어활동가
 - 공장연대 활동가 지원
- 숙박권?
- 안식년?
-

활동가퇴직연금은 사실상 단체 차원의 강제저축
이걸 빈고가 도와줄 수 있다면?
이건 빈고에서 바로 적용 가능할 듯.

연금공단? 단체에 권고할 수 있으면 좋을 듯. - 공동체은행빈고

퇴직연금과 같은 형태 - 공동체은행빈고

동행과 비교하여 빈고에서 잘 할 수 있는 보험의 영역은 무엇일까?

활동가들끼리 주기적으로 만나고 안부도 물으면서 형성되는 관계, 공동체 성, 서로 알고 살필 수 있는 - MYUNGJIN MOON

당사자가 막상 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울 때 옆에서 등떠밀고 챙겨줄 수 있는 것 - MYUNGJIN MOON

공동체보험

공동체들이 돈을 모아서

3모듬 - 빈고카드+기타(윤기쁨, 제제, 정훈, 송, 다음)

빈고카드가 무엇일까? 지역화폐, 펙권 조약의 여권 같은 것. 정확한 성격 잘 모르겠다.

그것을 매개로 교류가 활성화되면 좋을 것
가맹점-재화

나누어줄게 없는 공동체는?

빈고카드를 만들어서 서비스,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방식? 빈고카드가 모든 것을 카바해야하는가?

빈고카드에 주목하기 보다는 빈고가 금융형태이니까 귀농귀촌 작물 판매, 가공형태 판매의 판로? 은행 영업. 유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식의 카드 이용.

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친구들을 적극적으로 빈고가 만나서 실험해보았으면 좋겠다.

무형의 재화, 혹은 서비스도 가능하다. 음악이나 미술 전시. 빈고카드 활용. 입장권처럼 제시할 수 있는 것.

가맹점 카드 방식일 것인가
독자적 카드체계?

빈고가 그 사이를 보조할 수 있는 방식도 있지 않을까?

누구나 생산자/소비자가 될 수 있으니까 재화의 순환을 촉진

연회비 방식? 생산자에게 선지급
생산할 때 들어가는 비용 선수금 방식도 가능할 것.

빈고(상품??) 카탈로그-뉴스레터
대기업의 상품을 사고 싶지 않는데 이런 플랫폼이 있으면 좋을 것

방식은 여러가지로 고민할 수 있을 것. 카드가 실물일 수도 있지만 빈을 체크할 수 있다면 빈고페이와 연결? 빈고의 금융으로..

레드북스의 경우, 이런 아이디어가 이야기되지만 실무에서 접근하는 게 어려움. 소규모 서점 배송시스템
오프라인 책방 위주의 레드북스.

코로나로 인한 직접적 타격
빈고 밖에 있는 생산자분들이 함께 하면 좋지 않을까.

공동체의 경제적 선순환을 위한 고민. 빈고를 통해서 어떻게 가능할까.

빈고카드/빈고페이-수단
지불 방식-선지급/발생하는 이윤을 어떻게 공동체에게 다시 돌려줄 것인가/대안적인 소비?

판매자 생산자 발굴하는/만나는 시간,교환하고 싶은 것--빈고벼룩시장/장터
<빈장터>
무형의 재화, 쿠폰도 가능할 것

대상이 누구일까?
출품하는 사람, 지역을 묶어내기가 쉽지 않음
<온라인쇼핑몰-상설플랫폼>
<빈쇼핑/빈샵/빈가게의 부활>

(익명=디온)카드에 등록된 공동체들 방문시 먹여두고 재워주기 혜택 등 공동체별로 제공 가능한 재화와 서비스를 등록받고 이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자 - 익명

공동체 간 교류와 공동체 활동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한다면, - 익명

1. 이용분담금 기부처 지정 2. 공동체 활동(다른 공동체 방문기 빈고에 업로드 같은 시에 포인트 지급 등) - 익명

제일 먼저 해보면 좋을 서비스가 뭘까요? - 익명

온라인 레츠 같이 되는 건가요 - 익명

생산자들을 위한 펀딩? - 익명

펀딩에 초점을 맞추면, 일단 우리 내부에 그럴만한 상품과 유저가 얼마나 있는지, 구매빈도가 얼마나 될지, 생각해봐알듯요. 그냥 그때그때 텀방이나 패북이나 인스타로 올라오면 개별구매해도 될 거 같아서요. - 익명

빈고홈페이지를 이용 or 네이버카페 등 중고거래시스템이 있는 기존 서비스 이용 등으로 시작해서 어플 개발이나 웹사이트 제작에 들어가는 초기비용 없이 가볍게(거칠게?) 시작해봐도 좋을것같아요 - 익명

빈고카드로 시작해서, 빈고시장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.

4모듬 - 거점공간매입(숲이야, 천피터, 우중산책, 판다리)

거점공간매입에 왜 관심을 가졌는지

공룡 - 1,2월 정도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기업 하시는 분들, 청주 빈고 조합원 함께 지역공동체처럼 거점 공간 모임. 5억 3-4층 구도심. 지역에서 모아서 지역에서 매입하자는 이야기. 빈고가 중앙은행이라면 지역에서는 지방은행으로. 진행해볼까 생각. 구체화되지는 않음. 사회연대은행과 대화해서 기금 모금하면서 장소물색 진행. 공룡공간 + 게스트 하우스 + 사무공간.

판다리 - 운영하는 공간 임대료 부담. 시민건물주 운동 참고하는데, 경의선 공유지 운동 같은 것과는 어떻게 갈 수 있을지

숲이야 - 뼈빠지게 일을 해서 임대료 벌어야하는 현실이 녹록치 않음. 시민 자산화 움직임이 있는데, 그것과 연결해서 생각해보고 싶은 지점 있음. 여러가지 이유에서 들어오게 됨. 청주에서는 계획을 가지고 실행하고 있어서 반갑.

우중산책 - 지역은 서울과는 처한 입장 다르다. 세종시 생기면서 인구 줄기도 했고, 빈 공간 많아서. 청주나 지방 도시들은 빈 공간, 빈집 여유가 많음. 월세가 엄청 부담되지는 않는 상황. 1층 사무공간 60평 넘는데 2000-45 정도. 여기에서 변화가 벗어나서 씬. 구도심은 그런 상태. 외부의 힘에서 좌우되지 않는 공간 만들고 싶음. 오사카는 해방회관처럼 다양한 그룹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고민. 일정부분만 공룡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 희망.

천피터 - 거점공간 마련은 항상 관심 있음. 서울경기권 부동산 가격, 도시 밀집도 높음. 매입이 적절할지 임대료가 맞을지 고민. 흥대 사례는 특이 케이스. 해비하고 정치적. 빈고가 그런 움직임을 도심 한가운데에서 보일 수 있을까? 어렵겠다는 생각. 서울경기권에서 자산매입 어렵지 않을까. 결속력, 관계성을 위해서는 일상속에서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. 레드북스가 사무공간 역할을 하지만 사무공간이어서 자주 가기는 어려움. 공동체 차원 공간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. 밀집된 도시 안에서 시민 차원에서 사거나 빌리는 게 아닌 공공 차원의 요구들 끊임없이 제기하고, 그 과정에 빈고가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.

조건은 다르지만, 거점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에서는 의견 일치.

해방촌 공간 기반 공동체 활동 이점 알고 있음. 수도권에 거점 공간 필요하다는 건 동의. 매입은 아니어도 대면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.

자율성, 의사결정 문제를 어떻게 풀며 공공 프로젝트에 개입할 것인지.

우중산책 - 경의선 공유지 주목. 커먼즈 운동에 시사점. 경의선 공유지같은 실험이나 목소리를 다시 낼 수 있을까 고민. 그 경험들을 세미나를 통해 공부할 수 있는데 직접 결합해서 하기는 힘든 구조.

천피터 - 작은 회의에서는 방법론의 문제보다는 빈고 공동체 안에서 어떤 거점 공간이 필요한가, 어떤 서비스들을 필요로 하는가 이야기해봤으면 좋겠다. 필요로 하는 공간이 만들어져야 마련해가려고 할 수 있다.

빈고는 어떤 거점공간을 필요로 하는가?

판다리 - 사무공간을 넘어선 커뮤니티 기능

천피터 - 공동체 결속을 위한 공간, 거실과 같은 공간보다는 조합원들이 조사를 해봐서 카페 공간을 필요로 한다면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게 좋을 듯. 육아원, 명상 공간을 필요로 한다면 함께할 수 있는 공간. 필요에 의한 공간. 생동감 있게 운영되고 찾아올 듯. 공동체 결속을 위해서는 목적성은 분명하지만 운영이 쉽지 않다.

숲이야 - 레드북스는 책방이기도 하니 책 읽고 세미나. 그 이외에 최근 활동반경이 다양해지고 낭독회, 낭독극, 예술가와의 프로젝트 진행. 고민은 조합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2020년엔 기능을 잘 못 한 듯. 이전에 회의를 레드북스에서 대면으로 했는데 그게 온라인으로 대체되면서 어려워짐. 레드북스 자체 활동이 주를 이룸.

우중산책 - 공룡 자체가 활동가 네트워크 조직. 활동중심으로 공간을 이용. 미디어 활동이 많은 부분. 상영하고 이야기 나누고 밥 먹거나 지역 사람들. 카페나 식당 역할도.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이 놀러오니까 게스트 하우스. 안정적으로 숙식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3층. 코로나 때문에 이용을 못하고 있음. 지금 활동이 변해가고 있는 상황. 지역 연대 활동, 스튜디오 기능 첨가해야한다는 이야기. 공간은 2-3년마다 핵심 영역들이 변해가고 있음. 다른 데에 참고할만한 공간은 아니라고 생각.

판다리 - 다양한 구성원들의 욕구를 반영하는 공간 마련은 어떻게 가능할까. 보편적 욕구는 카페 등. 대관 등 수익사업도 고려.

천피터 - 약수터. 서촌 통인시장 입구. 12평 정도. 임대료 100만원 정도 지출. 관리비까지 120. 여기는 카페, 공유작업실 두 개 넣으려 했는데 하다보니 공유사무실, 작업실 기능 위주로 활용. 커뮤니티 성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남. 부부가 꽤 오랫동안 외부에 사무공간 필요성 있었음. 아현동에 있을 때 <언뜻가게> 운영. 2016년에 사라지고 나서는 물리적 공간 운영 겁이남. 계속 수요가 있었고 오래 고민하면서 모은 돈으로 인테리어 보증금 마련. 개인 비용으로 조성. 공공사업과의 연계는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함. 아현동 경우에는 거의 100% 공공의 프로젝트. 운영에는 부담이 없지만 의존성이 높아지고 자체적인 지속성이 길러지지 않음. 지원이 끊겼을 때 문제.

판다리 - 공공지원에 따른 자율성 침해가 고민. 그런 부자유한 삶의 형태에 대항하기 위해 빈고 공동체 자본이 있기도. 개인 공간이 아니라 공동체 차원에 협상력이 있을 것 같기도. 잘은 모르겠다.

천피터 - 2021년에 프로젝트 진행해봐도. 거점공간 마련 프로젝트. 조합원 요구 수렴.

숲이아 - 홍성도 거점 공간 마련. 지역 여기저기서 생겨나면 좋겠다는 생각.

천피터 - 레드박스 약수터 등 거점공간 될만한 것을 모으고 공유할 수 있는지 중요하게 고민해볼 문제.

판다리 - 빈고가 화폐만이 아닌 공동체 공간, 사람등 공동체 '자원'의 은행으로 개념이 확장될수도. 피터님제안대로 2021년 프로젝트로 빈고에 속한 공동체 공간 자원을 활용하면서 거점 공간 매입/입대/공공지원 등을 모색해봐도 좋을 듯.

※※※※※